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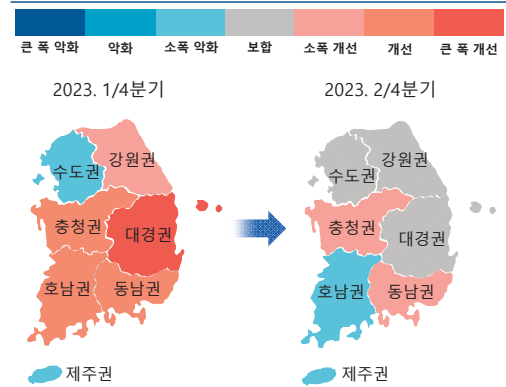
지역경제 동향은 2023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가능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향후 발표되는 공식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경기 개황

모니터링 결과, 2023년 2/4분기 중 지역경제는 자동차, 조선의 호조에도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소비의 완만한 회복으로 서비스업 생산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충청권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호남권과 제주권은 소폭 악화되었고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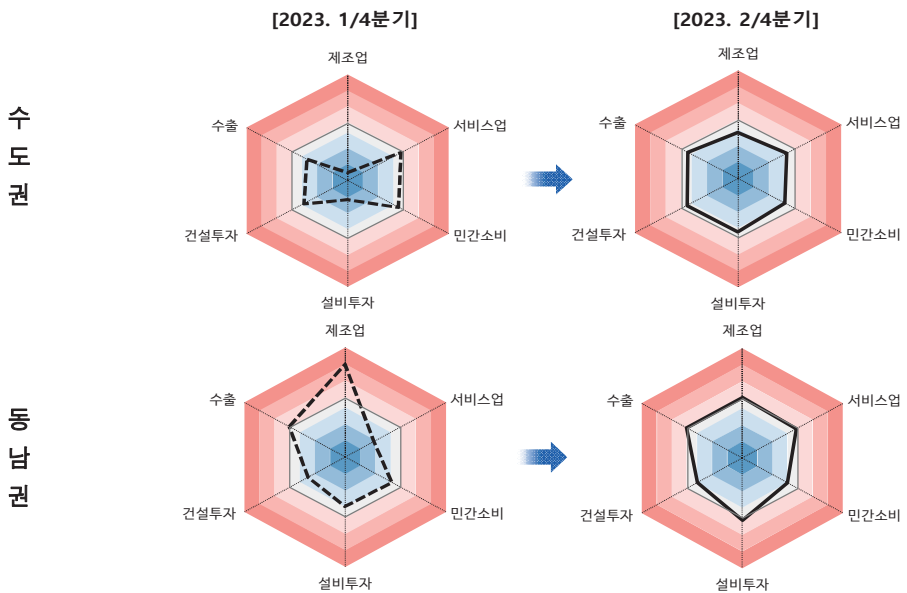
향후 지역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2/4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IT 경기 부진 완화,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제조업 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의 둔화와 점진적인 소비심리 개선이 서비스업 생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중국경제의 회복 및 선진국 금융불안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권역별 경기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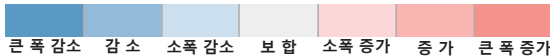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및 고용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2) '소폭 개선'은 장기평균 수준의 성장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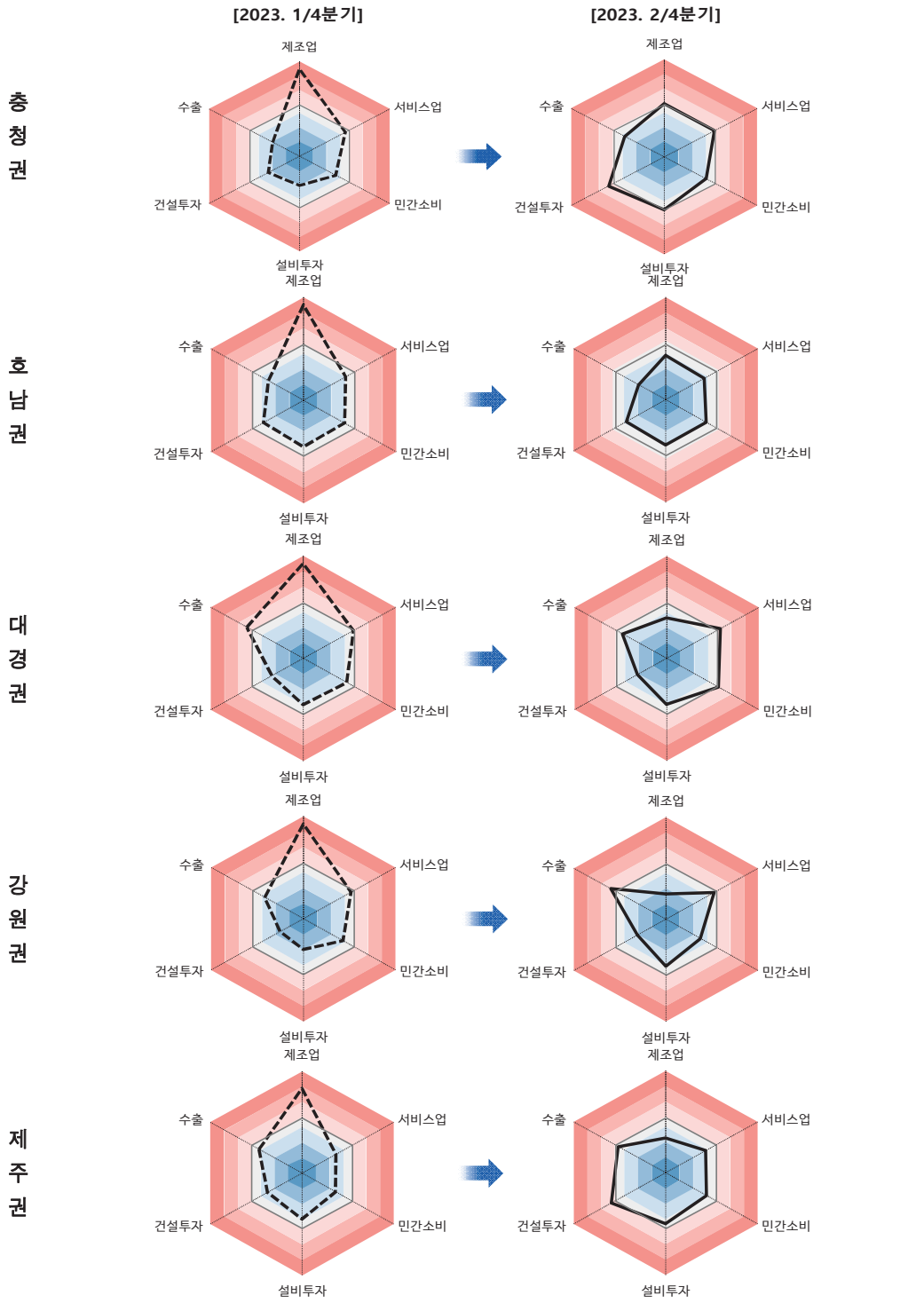
권역별 경기 레이더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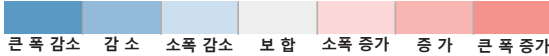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자수화(-5~+5)하여 평가



권역별 경기 레이더 추이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



2. 생 산

제조업 생산 포함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업황 부진을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의 호조가 일부 상쇄하는 모습이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이 소폭 감소, 강원권은 감소하였고 충청권은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 제조업 생산¹⁾

| 수도권 | 동남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강원권 | 제주권 |
|-----|-----|-----|-----|-----|-----|-----|
| ▼ | ▲ | ◇ | ▼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반도체의 부진이 느리게나마 완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인프라투자 확대, 일부 IT제품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증가하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서비스업 생산 포함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주택시장 정체에 따른 부동산업 부진 등으로 전분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권역별로는 대경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호남권,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였고 나머지 권역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권역별 서비스업 생산¹⁾

| 수도권 | 동남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강원권 | 제주권 |
|-----|-----|-----|-----|-----|-----|-----|
| ◇ | ◇ | ◇ | ▼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서비스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보합세를 보이겠지만 나머지 권역들은 모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2/4분기 중 권역별 제조업·서비스업 생산 동향¹⁾

| | 제조업 | 서비스업 |
|---|-------------------------------------------------|---------------------------------------------------|
| 수 | ·반도체(▼): 중국 리오팡형 효과 지연, 재고 누증에 따른 감소 | ·도소매(◇):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 온라인 성장 둔화 |
| 도 | ·자동차(▲): 부품수급 개선, 신차 및 친환경차 수요 | ·운수(◇): 화물 물동량 증가, 항공 여객 회복세 둔화 |
| 권 | ·디스플레이(◇): PC, 모바일 및 TV 수요 정체 | ·금융보험(▲): 주식 거래대금 증가, 기업대출 증가 |
| | ·철강(◇): 건설업황 부진, 선박용 판재 수요 개선 | ·숙박음식점(▼): 높은 물가로 외식수요 감소 |
| | ·자동차(▲): 반도체 등 부품수급난 완화, 신차 및 친환경차 생산 증가 | ·부동산(▼): 주택 매매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 |
| 동 | ·조선(▲): 2021년 이후 크게 늘어난 수주물량 건조 | ·도소매(◇): 소비심리 개선, 향후 경기 불확실성 증대 |
| 남 |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가격 하락, 공급과잉 | ·부동산(◇): 주택매매거래 부진 지속 |
| 권 | ·철강(◇): 선박·차량용 판재 수요 호조, 중국산 수입 증가 | ·운수(▲): 항공운송 증가세, 부산항 컨테이너 반등 |
| | ·석유정제(▼): 유가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일부 정기보수 | ·숙박음식점(▼): 전기 큰폭 증가 기저효과, 해외여행 증가 |
| | ·석유화학(◇): 채산성 개선, 중국 수요회복 지연 | |
| | ·자동차(◇): 부품 공급 정상화, 신차 효과 지속 | ·도소매(◇): 대형소매점 할인행사, 고물가 및 고금리 |
| 총 |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양호, 건설경기 부진, 일부 정기보수 | ·운수(◇): 철도·항공 여객 증가, 화물 물동량 감소 |
| 청 | ·디스플레이(▲): 신형 스마트폰 출시로 패널 생산 증가 | ·부동산(▼): 미분양물량 지속,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
| 권 | ·전기장비(▲):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이차전지 호조 | ·숙박음식점(▲): 지역 축제 증가, 숙박 보조금 등 정부정책 |
| | ·반도체(▼): 전방산업 수요 부진, 제조업체 감소 확대 | |
| | ·석유정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제마진 축소, 가동률 하락 | ·운수(▼): 수출 부진, 운송 물동량 및 항공 운항편수 감소 |
| 호 | ·석유화학(▼): 수출 부진, 정기검사 실시로 가동률 하락 | ·부동산(▼):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감소 |
| 남 |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 개선 | ·숙박음식점(▲): 대규모 행사 개최로 관광객 유입 |
| 권 | ·조선(▲): 인력 수급난 완화 | ·도소매(◇): 소비심리 회복 지연 |
| | ·반도체(◇): 모바일용 수요 증가, 높은 재고수준 유지 | |
| | ·철강(◇): 자동차용 강판 및 조선용 후판 수요 증가, 건설용 열연 수요 감소 | |
| | ·디스플레이(▼): LCD패널 생산 감소 | ·숙박음식점(▲): 해외여행 및 국내관광 증가 |
| | ·기계장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설비투자 유인 악화 | ·도소매(◇): 외부활동 증가에 따라 식료품 매출 감소, 의복 및 스포츠 관련 매출 증가 |
| 대 | ·휴대폰(▼): 아이폰 생산 차질로 인한 국산 고가 부품 수요 감소 | ·운수(◇): 해외여행 수요 지속 |
| 경 | ·자동차부품(▲): 반도체 수급난 완화, 적정 재고 수준 유지를 위한 생산 증대 | ·부동산(◇): 주택거래 부진 소폭 완화 |
| 권 | ·철강(▲): 선박, 자동차 생산 호조 | |
| | ·섬유(◇): 군·관납 섬유 제품 수요 증가, 섬유소재 업체 가동 감소 | |
| | ·자동차부품(▼): 내수 및 수출 부진 | ·부동산(▲): 주택거래량 일부 회복 |
| | ·의료기기(▼): 초음파 진단기 등 수출 감소, 기저효과 | ·여가(▲): 놀이공원 영업시간 확대, 오락시설 이용객 회복세 지속 |
| | ·시멘트(▼): 기저효과, 전기료 인상 | ·숙박음식점(▼): 대형산불 발생, 해외여행 수요 증가 |
| | ·의약품(◇): 호흡기계 의약품 수요 증가, 미용 의약품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 부진 | ·도소매(▼): 승용차 판매 감소, 대형소매점 부진 지속 |
| 강 | ·전선(▲): 대만 공급 재개, 신규 생산시설 가동 | ·운수(▼): 지역 항공사 운항 중단 |
| 원 | | ·숙박음식점(▼): 내국인 관광객수 감소로 고가형 숙박시설 예약 감소 |
| 권 | | ·부동산(▼): 주택 거래량 부진 |
| | ·음·식료품(▼): 내국인 관광객수 감소 | ·여가(▼): 골프장 내장객 감소 |
| 제 | ·비금속광물(▲): 공공부문 투자에 따른 시멘트 수요 증가 | ·도소매(▲): 대형마트 소폭 증가, 면세점 보합 |
| 주 | | |
| 권 | | |

주: 1) ()내는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감소, 보합을 나타냄

3. 수 요

민간소비 포함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보험세를 유지하면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대경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동남권 및 충청권이 보험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호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였다.

권역별 소비¹⁾

| 수도권 | 동남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강원권 | 제주권 |
|-----|-----|-----|-----|-----|-----|-----|
| ◇ | ◇ | ◇ | ▼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험, 감소를 나타냄

향후 민간소비는 고금리 및 고물가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사정, 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보험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권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 포함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친환경 전환 수요에 대응하여 투자가 이어졌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은 소폭 증가한 반면 호남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여타 권역은 보험 수준을 나타내었다.

권역별 설비투자¹⁾

| 수도권 | 동남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강원권 | 제주권 |
|-----|-----|-----|-----|-----|-----|-----|
| ◇ | ▲ | ◇ | ▼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험, 감소를 나타냄

향후 설비투자는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높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IT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축소가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대경권은 소폭 증가하고 호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이 보험 수준을 나타내며 수도권과 충청권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투자 포함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착공면적이 줄어들면서 민간부문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공공부문이 보험세를 유지하면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제주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은 보험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및 강원권은 소폭 감소하였다.

권역별 건설투자¹⁾

| 수도권 | 동남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강원권 | 제주권 |
|-----|-----|-----|-----|-----|-----|-----|
| ◇ | ▼ | ▲ | ▼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험, 감소를 나타냄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 정부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이 보험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권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보합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자동차 등 수출 호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업종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강원권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대경권 및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충청권은 소폭 감소하였고 호남권도 감소하였다.

권역별 수출(일평균)¹⁾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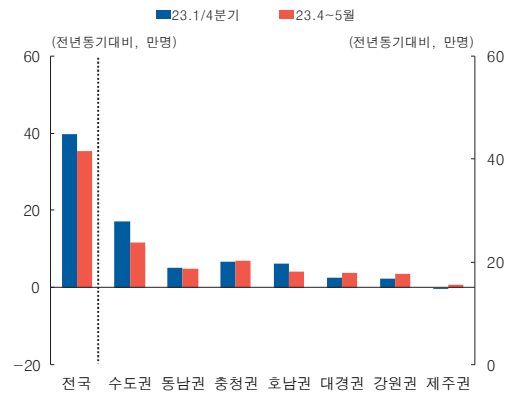
향후 수출은 중국 리오프닝 파급효과 및 IT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제주권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타 권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4~5월 중 취업자수(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35.2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1/4분기(39.7만명)에 비해 축소되었다. 권역별로는 제주권이 증가 전환되었고, 충청권, 대경권 및 강원권의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나머지 권역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취업자수 증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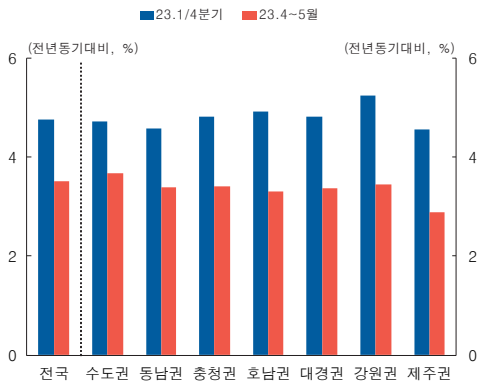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오름폭 축소

4~5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전기·가스·수도 가격과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유가 안정에 따라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며 모든 권역에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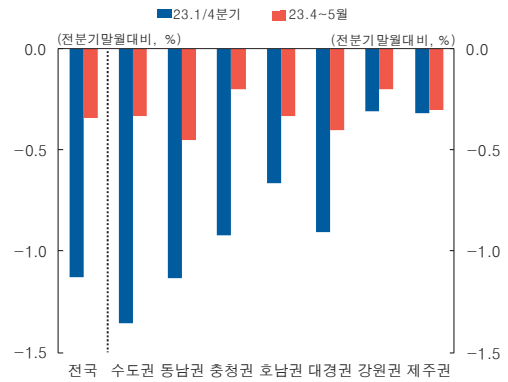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하락폭 축소

4~5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매수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모든 권역에서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참고

빅데이터 모형을 이용한 권역별 업황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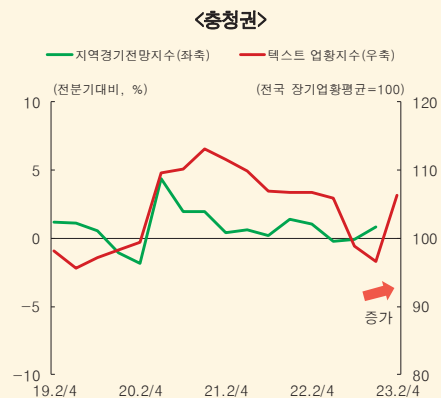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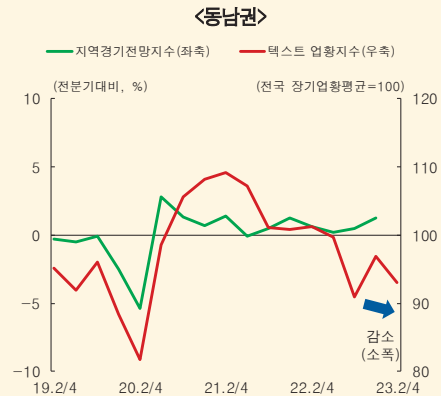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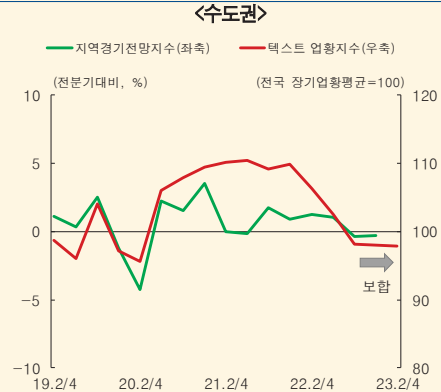
최신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기법(서범석, BOK이슈노트 2023-5)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세분화된 2/4분기 지역경기 업황지수(Text-based Business Confidence Indicator, 이하 텍스트 업황지수)를 산출¹⁾하였다. 분기별 약 7천여건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업평가 보고서를 분석하여 기업 업황을 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공장 소재지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권역별 텍스트 업황을 추정하였다. 동 지수는 금번호부터 지역경기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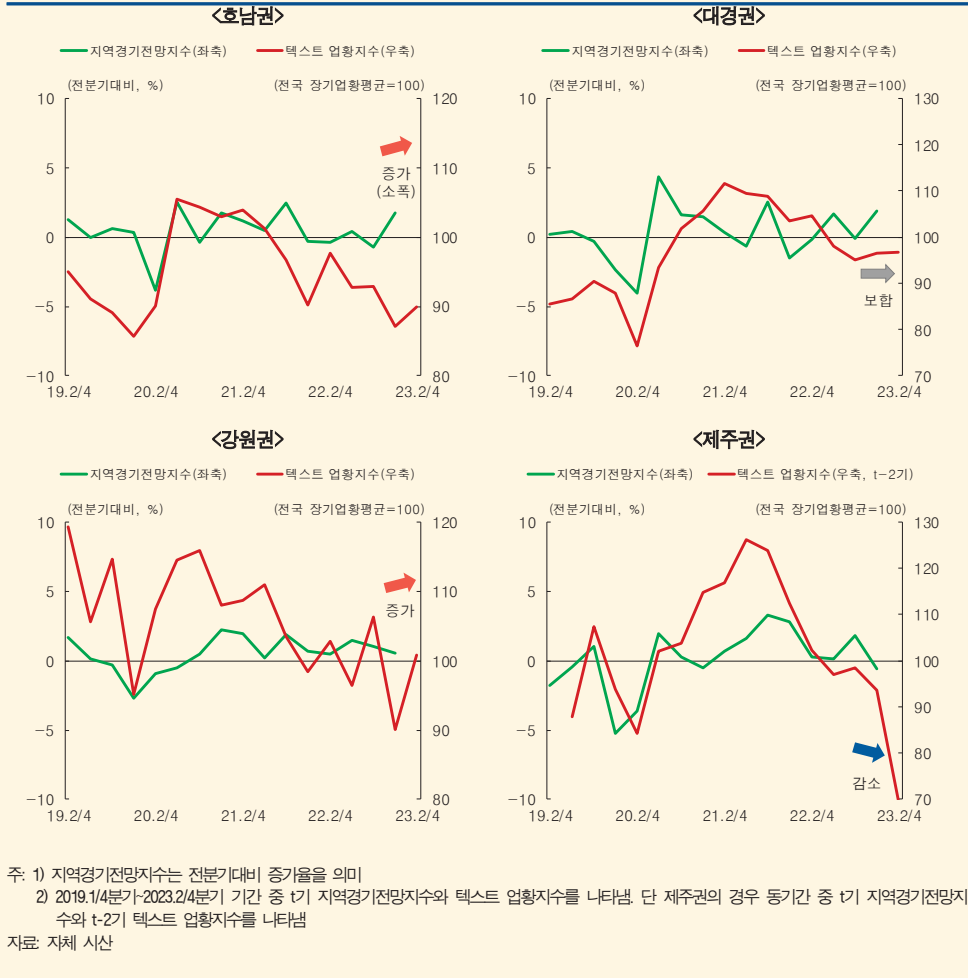
텍스트 업황지수는 전국의 장기업황평균²⁾을 100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텍스트 업황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업황이 전국 장기평균보다 호조인 상황을, 낮을 경우 부진한 상황을 의미한다. 텍스트 업황지수에는 업황에 대한 전분기와의 비교가 반영되어 있어 그 자체로 증가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³⁾

텍스트 업황지수로 추정된 권역별 업황은 3개 권역이 개선(소폭 증가~증가), 2개 권역은 보합, 2개 권역은 악화(소폭 감소~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충청권 및 강원권 생산은 증가, 호남권은 소폭 증가, 수도권 및 대경권은 보합, 동남권은 소폭 감소, 제주권은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전국 업황의 장기평균 수준과 비교해보면,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의 업황은 전국 장기평균에 비해 부진한 상황인 반면 충청권, 강원권은 전국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이다.

텍스트 업황지수를 통해 추정된 권역별 생산 전망¹⁾²⁾





- 1) 2023년 2/4분기 텍스트 업황지수는 4월 및 5월 일부 기간 중(4.1~5.10일 기준) 작성된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업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자세한 분석 방법은 BOK 이슈노트(제 2023-5호)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산업 모니터링: 증권사 리포트 텍스트 분석'(서법석, 2023)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전국의 장기업황평균은 17개 시도의 2019년 1/4분기~2023년 2/4분기 중 평균 업황을 의미한다.
- 3)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요인으로 인해 유통업계 방문객이 감소'라는 문장의 경우 '감소'라는 업황 평가가 업황지수에 반영되어 있다.
- 4) 다만 텍스트 업황지수에는 전기대비 증가율을 설명하는 요인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설명하는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